



아시아뉴스통신
Asia news agency

대전시교육청, '사회복무요원 안전체험 교육' 실시

- 안전체험으로 사회복무요원 재난안전의식 제고

(아시아뉴스통신= 이현식기자)

송고일시 : 2019-10-24 15:34



대전시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및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24일 충청남도 안전체험관에서 '안전체험교육'을 실시하는 가운데 단체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(사진제공=대전시교육청)

대전시교육청은 24일 본청, 직속기관 및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, 충청남도 안전체험관에서 '안전체험교육'을 실시했다.

이번 교육은 사회복무요원들의 각종 재난사태 발생 시 대응능력 향상과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.

안전체험교육 내용으로는 도시철도사고, 고층건물 화재, 교통사고, 실내 화재, 산불,

산사태, 태풍, 수난안전, 지진 등으로 구성됐다.



24일 대전시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및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요원을 대상으로, 충청남도 안전체험관에서 '안전체험교육'을 실시했다.(사진제공=대전시교육청)

특히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으로 구분해 재난발생시 대처요령을 습득하고 피난기구를 이용하여 피난체험을 실습함으로써 사회복지요원들의 재난대비태세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.

대전교육청 이장희 총무과장은 "재난발생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체험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"며, "학교현장의 재난안전사고 발생시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요원의 안전체험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"고 말했다.